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영철



광주와 나주가 문화산업의 허브도시가 될 것인가. 이를 위해 많은 자본, 기술, 노력이 연일 쏟아 부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민을 위해 나아가 국민 모두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진화시키고,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는 욕망을 반영한다. 여기서 문화산업의 생명은 무엇보다 '콘텐츠'에 있다고 말해진다. 바야흐로 콘텐츠 산업의 시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콘텐츠는 예술의 영역이었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에 의해 예술의 영역이었던 콘텐츠는 서비스 경제로 편입됐고, 이제는 창조산업, 체험경제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과연 콘텐츠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유무형의 요소를 지칭하며, 멋과 매력을 갖췄을 때 그 진자가 발휘된다. 멋과 매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감각,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나오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감동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어야 살맛나는 것이다. 그것이 부족하면 물질이 충분해도 허전하고 마치 눈동자가 없는 눈과 같아서 일을 내다 볼 수 없고 생명력과 지속성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가 정부 주도 하에 문화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으로 예술의 영역이었던 것이 행정의 지도,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토목사업처럼 정부가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 그리고 예술

개발하겠다고 덤벼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시대의 역군이었던 산업 전사는 정부의 규율 하에 육성될 수 있을 런지 불과로 문화의 시대에 요청되는 예술전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화산업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깨가 넘치는 예술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문화행정은 산업시대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문화행정은 프로슈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작동돼야 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예술 전문가

의 주도 아래 구축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조성 방식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하이테크 보다 예술적인 하이터치가 훨씬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다. 유배문화의 산실이기도 한 흑산도를 무대로 만들어진 소설 '흑산'을 마치며, 작가 김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말이나 글로써 정의를 다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여 한다. 나는, 겨우 조금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이나

앞서 국가의 운명을 내다본 성리학자이자, 과학자이다. 그는 흑산도의 흑(黑)이 너무 깁깝하다 여겨 자신의 호를 자선(茲山)이라 했다. 자(茲)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저 죽음의 땅에서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자(茲)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자는 또한 지금,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다.

우리는 광주 5·18의 가치를 지금 여기의 시공간 좌표계에서 사상적으로 진화시켜야 하고, 의학의 예리한 기운을 예술적 각각으로 세련화 시킬 당위성을 알고 있다. 평등의 이념으로, 역사적으로 의기의 불길을 뿐어낸 무등산과 마주한 문화전당의 저 넓은 터가 어찌면 장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예술의 거대한 어두운 연못이라 어려진다.

문화전당의 건물을 대한 시시비비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됐는데, 거대한 건물을 지하로 내려 앉혔다는 건축가의 생태학적 구상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광주 황령의 죽음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유발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예술은 고통에서 풀어져 나온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 옛 전남도청이 있던 부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아시아인의 고통, 슬픔, 소망의 거대한 예술적 수원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정영하

민사분쟁의 새로운 대안, 조정제도

다. 내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 무관심 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에도 참석했고, 드디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지금까지의 수고를 생각하면 소송비용까지 꼭 받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받아야 한다(불론 여기에서 허가로 인한 손해나 법원에 오는 차비 등까지 인정해 줄리 없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돈을 손에 쥐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보통의 민사재판 과정이다.

똑같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 피해자 소장을 제출했다는, 이번에는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았더니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조정기일에 나간 피해자는 이렇게 소송까지 온 이상 어떤 양보도 어렵고, 지연손해금까지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민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것은 아니며,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소송보다 협상이나 조정이 먼저 분쟁 해결에 이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로 근대적 의미의 소송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분쟁이 집안이나 지역의 어른 등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돼 왔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협상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협상이 잘 진

직장에 취업해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기는 하나, 생활비로도 빠듯하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이다. 판사 또는 조정위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의 장이 열린 것이라며 앞서 본 소송의 단점과 뒤에 기술된 조정의 장점을 거론하며 조정을 권유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끝에, 피고가 이번 달부터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연체시에는 즉시 전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는 분할 변제 약속을 지키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것은 아니며,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소송보다 협상이나 조정이 먼저 분쟁 해결에 이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로 근대적 의미의 소송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분쟁이 집안이나 지역의 어른 등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돼 왔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협상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협상이 잘 진

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 대화가 가능해야 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합의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인 조정자가 당사자 간 대화 중단의 원인을 찾아내 그 장애를 없애고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면,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조정은 소송과 비교할 때, 신속하고, 저렴하며,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다양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 적합하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스스로 합의에 따른 만큼 당사자에게 민족감을 주고,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자진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행할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 분쟁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 모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앞서 든 예는 조정에 적합한 아주 간단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분쟁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는 소송과 재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조정은 소송절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소송제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3단독 판사〉

기고



문금주

2012 '하늘·바람·땅' 에너지전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까지 확대를 추진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9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30년까지 일본 전력생산 중 원전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에너지 기본정책을 백지화하고, 전체 전력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부터 대체에너지관련 법률 및 종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2011년에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을 수립,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5% 감축 등의 목표 및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거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태양광, 풍력분야를 지정받아 총

260억원을 사업화 기술개발에 투입중이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기업지원 2단계 사업이 선정돼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태양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5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를 슬리시티센터와 테스트 베드를 구축 중에 있다.

2000년부터 집중 육성중인 광산업은 지난 2009년부터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LED와 OLED, 광바이오 의료기술과 초정밀 레이저 기술개발사업이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5년 광산업 세계 TOP 3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산업, 디지털정보기기,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을 필수적으로 접목되고 필요 전력만족을 생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력기술의 꽃이어야 할 수 있는 전력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전남지회를 창립.. 각계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 광주가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산업분야 발굴에 주력하고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주진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산업과 연구가 조화를 이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에너지 저장기술인 차세대 2차전지와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한중일 에너지·소재 국제연구소 개소와 함께 국내 에너지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본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이렇듯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에너지분야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적 에너지 전시회인 하늘(Solar), 바람(Wind), 땅(Earth) 에너지전이 오는 24일 개막식을 갖고 3일간 개최된다. 본 전시회에서는 에너지관련 신제품 전시는 물론 태양광·풍력분야 전문가 특별세미나와 국제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경진대회 등 다채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바이오에너지 코리아 컨퍼런스 2012 국제심포지엄과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함께 투자유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하며, 광주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도시로 비상하길 기대해 본다.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광주·전남 정치권 새 각오로 역량 결집해야

광주·전남 정치권의 침체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진영의 본산으로, 아矜의 심장 역할을 했던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상은 18대 국회에서도 지속됐고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현재도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이렇다 할 대선주자 조차 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쇠락일로인 호남정치는 한명숙 전 대표가 주도한 공천과정에서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다. 텃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정부 부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재선급 의원들이 퇴장과 강요받은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무소속으로 국회 재임성을 노렸지만 민주당 퇴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지역정치권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한국 정치사의 주역이었던 호남정치 세력이 조연급으로 밀려난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자생력을 상실한 탓이다. 다시말해 시대 흐름을 명쾌하게 읽고,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것이다.

당선자들은 당 지도부에 끌려다니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뛰어넘는 희생과 배려, 도전정신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호남정치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입찰비리 근절책 이대론 안된다

광주시가 총인처사실 입찰 비리와 관련, 심각한 내외상(內外傷)을 입었다. 강운태 시장은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이어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도 그만금 깊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교수·고위 공무원과업체 간에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공무원과업체 간의 담합비리 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수까지 가세하면서 수억 원대의 뇌물에 조직적이고 노골적이라는데 말문이 막힌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렴'을 입버릇처럼 끄들어왔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동안 터키(설계·시공 일괄주)방식의 입찰은 담합과 뇌물 등 '뒷거래'가 예고됐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나 의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광주시는 이제 대오각성의 자세로 강력한 시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원-아웃 퇴출제나 터키 방식의 개선 등을 내놓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실행하려는 공직자의 의지와 각성이 중요하다. 강 시장은 '사후방문이 되지 않도록 눈과 귀를 짤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산업기술의 성과를 겨루는 '경제·문화올림픽' 엑스포(EXPO)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이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스(크세르크세스1세)왕이 BC 5세기경 여러 민족 대표를 초청해 6개월동안 연 시회를 했기로 했다. 당시 전시의 목적은 제국의 부(富)와 영화를 과시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산업기술의 성과를 겨루는 '경제·문화올림픽' 엑스포(EXPO)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이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스(크세르크세스1세)왕이 BC 5세기경 여러 민족 대표를 초청해 6개월동안 연 시회를 했기로 했다. 당시 전시의 목적은 제국의 부(富)와 영화를 과시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산업기술의 성과를 겨루는 '경제·문화올림픽' 엑스포(EXPO)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 박람회기구(BIE) 인정 박람회인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해양로봇 관과 에너지파크, 이루 아리아에서는 다양한 해양산업의 전시들이 선보인다.

국내 첫 정원박람회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남도의 살아 있는 바다와 습지생태를 무대로 하는